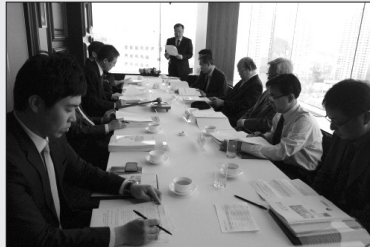


2011.7
July

협회 동정

이병극 캐리마 사장, 한국광학기기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지명



▶지난 5월17일 열린 2011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협회 송기호 부장이 사업보고를 하고 있다.



▶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어 박수를 받고 있는 이병극 캐리마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광학기기협회의 2011년도 제 2차 이사회가 지난 5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2011년도 수지예산(안), 2011년 급여지급(안), 차기회장 추대 건으로서, 차기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협회 박상진 회장의 잔여임기(현재~2012.2)동안 회장직무대행을 이병극 캐리마 사장이 수행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승인했다.

‘광학세계’ 제2차 편집자문위원회 개최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소식지 ‘광학세계’의 제2차 편집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학세계의 질적 향상과 신규 독자 창출을 통해 협회 및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소식지 ‘광학세계’의 제2차 편집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련 산업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지난 회의 때도 지적된 바 있는 광학세계의 ‘온라인화’를 서둘러 젊은 층의 독자 확충은 물론 배너광고 유치 등을 통해 광학세계 발간비 적자 난을 해결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원 마련을 통해 협회 홈페이지 보강 작업 및 광학세계 온라인화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회원사 동정

삼성전자(주)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 디지털이 미징사업부 관장

삼성그룹이 7월 1일자로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부품사업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메모리와 시스템LSI, LCD 사업을 총괄하는 DS(Dvice Solution)사업을 신설하고 권오현 LCD 사장을 총괄 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부품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DS 사업 총괄 내 경영지원실을 신설하고 신임 실장으로 김종중 삼성정밀화학 사장을 앉혔다. LCD 사업부장인 장원기 사장은 CEO 보좌역을 맡아 DS사업총괄 제조 및 설비를 지원한다.

(주)모던하이테크 3D측정장비 및 다축조정기 출시

모던하이테크(대표 김명중)가 3D측정 장비와 다축조정기를 선보였다.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LED EXPO & OLED EXPO 2011'에 참가한 모던하이테크는 세계 최초로 양안위치에서 동시 측정 가능한 3D측정장비(모델명 DMX43D)와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자동측정이 가능한 신개념의 다축조정기(모델명 gonio 2 & gonio 4π)를 공개했다.

일본 Optical Division에서 공급하는 DMX43D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눈에 들어오는 광량의 좌우 시간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는 측정장비로서, 깜박임, 휘도저하 등의 불편함을 없앴다. 해석용 소프트웨어가 부속돼 있고, 셋업, 조작도 간단해 짧은 시간 내 사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LCD, 유기EL, 프로젝터 등 각종 3D 디스플레이에 활용할 수 있다.

gonio 2π & gonio 4π는 장비 1대로 BSDF와 Source Imaging 등 두가지 타입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샘플 주변의 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임의의 각도 및 방향으로 자동 측정이 가능하며, 공급사인 독일 Opsira의 각 제품과 결합하여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ray data, scatter light data 값의 측정이 가능하다.

한편, 모던하이테크는 Light Tools와 CODE V 등 설계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광학설계 산업 분야에서 큰 역량을 과시하고 있으며, 섬유봉제 컴퓨터 디자인 분야, 송전설계 분야, 레이저 응용 분야 등에서도 많은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Optical Division사의 엔지니어가 양안에 분리하여 보내지는 영상이 시간적으로 섞이는 크로스토크 현상을 측정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축조정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독일 Opsira의 Dirk Hansen 박사

삼성전자는 또한 신종균 사장을 무선사업부와 함께 디지털이미징사업부를 관장하도록 해 카메라사업부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토록했고 공석인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에는 한명섭 전무를 임명했다.

이밖에 조준형 부사장을 경영지원실 법무팀장에, 조남성 스토리지담당 전무를 스토리지 담당 겸 생산기술연구소장에 각각 임명했다.

한편 삼성정밀화학은 김종중 사장 후임으로 성인희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을 선임했다.

〈신종균 사장 프로필〉

신종균 사장은 56년생으로 영등포고와 광운대 전자공학과를 거쳐 삼성전



자에 입사했다. 20년가량 휴대폰 기술 개발에만 몸담은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1993년부터 다수의 명품 휴대폰 개발을 주도하여 '에니콜 신화'와 함께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글로벌 2위로 이끈 일등공신이다. 2009년 12월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책임지는 무선사업부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7월 1일 전격 단행된 그룹인사에서 삼성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카메라·캠코더를 총괄하는 디지털이미징 사업부까지 책임지게 됐다.

〈한명섭 부사장 프로필〉



삼성전자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에 임명된 한명섭 전무는 1958년생으로 성남고,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에 입사했다. 영상디스플레이 글로벌 CS팀장, 삼성전자 멕시코 생산법인장을 거쳤으며, 지난 2009년부터 PDP 일류화TF장을 역임해왔다. 지난 2006년 삼성전자 멕시코 생산법인장으로 부임한 이후 멕시코 생산법인을 최적의 TV 공급기지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에 삼성이 북미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자랑스런 삼성인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신도리코

소비자만족 자율 관리 시스템 도입



▶신도리코 CCMS 선포식에 참석한 표희선 사장과 임직원들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지난 5월16일 업계 최초로 '소비자만족 자율 관리 시스템(CCMS)' 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CCMS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 만족 향상 프로그램으로서,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글로벌 표준 고객관리 프로세스다.

국내 사무기기 시장에서는 신도리코가 처음으로 CCMS를 도입, B2C 시장에서 강조됐던 고객 서비스를 B2B 시장에서도 실행함으로써 고객중심경영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영업·서비스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기업의 장점을 살려 모든 접점에서 소비자만족 자율 관리 시스템을 제공, 차별화된 경쟁력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에는 기존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재검토해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한편, 내부 프로세스 구축 및 정기 회의를 실시해 CCMS 실행 지침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신도리코 김성웅 이사는 "신도리코가 소비자들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한단

(주)신도리코

QR코드 고객센터 최초 시행



▶신도리코가 제품에 QR코드를 부착,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신청 및 기기 관리를 할 수 있는 'QR코드 고객센터' 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신도리코(대표 우석형)가 제품에 QR (Quick Response) 코드를 부착,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신청 및 기기 관리를 할 수 있는 'QR코드 고객센터' 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다수 기업들이 QR코드를 광고·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고객 서비스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오피스 환경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이 업무 환경에 보다 밀접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

계 높은 수준의 CCMS를 앞장서 도입하게 됐다"며 "전사적으로 구성된 CCMS를 통해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철저한 고객관리 문화를 정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옵트론텍

2011년 매출 1150억 전망

옵트론텍(대표 임지윤, 이상목)은 2011년 매출 전망치를 1150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예상치를 각각 150억원, 100억원으로 공시했다.

회사측은 "광학렌즈 및 모듈사업은 디지털카메라 렌즈 및 모듈을 축소하고

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으로 프린터, 복합기 전면 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메인 화면에서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콘만 누르면 서비스를 접수하거나 소모품을 신청할 수 있고, 콜 센터(1588-5850) 통화도 바로 연결할 수 있다. '자가진단' 콘텐츠를 통해서 간단한 수리를 고객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동안의 서비스 이력과 신청한 서비스의 진행 상태 및 진단 결과 등도 한 눈에 확인가능하다.

신도리코 김성웅 이사는 "QR코드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업무 활용도가 높아지는 오피스 트렌드에 주목한 신도리코만의 앞선 서비스로 고객이 보다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품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리코는 계속해서 업계 최대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시카메라(CCTV)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스마트폰 시장확대에 따라 고화소용 적외선차단필터 출하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엔유프리시전(주)

평판표시장치의 이물 검사기 특허 출원

에스엔유프리시전(대표 박희재)은 LCD, OLED의 이물을 검사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물 검사기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6월 10일 공시했다.

에스엔유프리시전(주)

월드클래스300 · 코스닥 히든챔피언 · 정부과제 사업자 등 3관왕 달성

에스엔유프리시전(대표 박희재)이 최근 '월드클래스300'을 비롯해 '코스닥 히든챔피언'과 정부과제 사업자에 잇달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식경제부 '미래산업선도조기창출' 과제 일환인 '고효율 대면적 박막 태양전지 기술개발' 사업에 삼성전자, LG전자, 동진썬미켄 등과 함께 참여하기로 확정됐다. 또한 지경부가 주관하는 월드클래스300 기업과 함께,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히든챔피언에도 선정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에스엔유프리시전은 1998년 서울대 실험실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이후 초정밀 측정기술 개발에 전념했다. 그 결과 LCD 불량 유무를 3차원(3D)형상으로 측정하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현재 이 부문에서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에스엔유는 그동안 외산에 의존해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측정장비(이베포레이션)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2009년 충남 아산에 1만㎡ 규모로 사업장을 건설한 데 이어, 4만3000㎡ 규모의 추가 사업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크루셜텍(주)

터치스크린 시장 공략 '젠걸음'

크루셜텍(대표 안건준)은 모바일 기기용 마우스인 옵티컬트랙패드(OTP)와 터치스크린패널(TSP)을 동시에 구현한 스마트 입력장치 'OTP2.0'의 연구개발을 완료했으며, 천안 본사에 생산라인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총 투자금액은 250억원 정도로 내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투입된다. 올해 말까지 모바일용 OTP2.0(4인치 기준)

을 월 60만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월 100만개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OTP2.0은 터치 직관성과 OTP의 정교함을 동시에 구현한 것으로 스마트 기기를 정조준한 제품이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정전용량 방식 TSP와 OTP를 같이 적용한 모델수를 점차 늘리고 있다. TSP는 △강한 내구성 △높은 투과율 △멀티터치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밀한 터치가 힘들고 비전도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

2009년 TSP와 OTP를 동시에 채택한 스마트폰 수량은 350만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893만대로 급증했다. RIM의 블랙베리 터치, HTC의 디자인어는 TSP와 OTP를 같이 채택해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크루셜텍은 OTP2.0을 기존 'TSP+홈키'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내놓아 터치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전략이다. 홈키는 단순히 취소하거나 홈 메뉴로 돌아가는 기능밖에 없지만, OTP는 메뉴선택 · 프리무빙 · 스크롤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크루셜텍은 향후 HW와 SW를 동시에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사업으로 확대해 OTP 중심의 '에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작업과 게임 · 학습 등 콘텐츠 생산을 위해 여러 업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새로 출시할 OTP2.0도 에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점에서 진행됐다. 크루셜텍은 내년부터 OTP2.0을 세트업체에 본격적으로 공급해 9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한국후지제록스(주)

2011 서울국제도서전에 디지털 인쇄기 전시



▶한국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기가 전시된 POD출판 홍보관 부스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김종영)과 함께 지난 6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1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주문형출판(POD)이 가능한 디지털 인쇄기를 전시해 눈길을 모았다.

한국후지제록스는 POD출판 홍보관에 디지털 컬러 인쇄기인 '700 DCP(Digital Color Press)'와 흑백인쇄기인 'FX4127'을 전시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쇄를 활용한 나만의 책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였다.

한국후지제록스(주)

서비스품질 SCP 인증 획득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후지제록스 기술상담센터에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SCP인증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자사 고객 서비스가 세계적 서비스 품질평가 프로그램인 SC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미국 독립 심사기관 SSC(Service

한국후지제록스(주)

SNS 활용한 디지털 인쇄 사업 세미나 개최



▶ 지난 6월 1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국후지제록스 본사에서 열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디지털 인쇄 사업' 세미나 광경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6월 1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국후지제록스 본사 쇼룸에서 인쇄 전문지 기자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디지털 인쇄 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NS의 부상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SNS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인쇄 업체의 실제 사례를 통해 뉴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마케팅 접근법 등이 소개됐다.

강연은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업체인 소셜링크의 이중대 대표가 <소셜 미디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업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 현황과 개인 브랜드 구축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포털 업체 마음커뮤니케이션의 박진만 대표가 <SNS를 활용한 디지털 인쇄 사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실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만 마음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급변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과 소통하는 관계 지향적인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고객 맞춤형 1대1 마케팅, W2P(Web to Print) 등 디지털 인쇄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상헌 한국후지제록스 마케팅실장은 “앞으로도 단순히 제품의 특징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통해 어떻게 하면 디지털 인쇄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trategies Corporation)가 주관하는 SCP(Service Capability & Performance) 인증은 고객 기술 지원이 잘 된 업체에게 주는 서비스 품질인증 기준이다. SCP 심사는 고객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 다각도로 평가되며, 서비스 계획부터 고객 피드백, 문제해결 관리 방안까지 12개 표준 항목에 120여 가지 요소가 심사 항목으로 포함될 정도로 엄격한 평가를 거친다. 이 심사에서 한국후지제록스 기술상담센터는 명확한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고객 지원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수영 한국후지제록스 전무는 “제품의 품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서비스 품질”이라며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심사기관의 서비스 품질 인증을 통해 후지제록스가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광학계 동정

삼성테크윈, 폰카메라모듈업 영업 정지 12월로 연기

삼성테크윈은 폰카메라모듈사업의 영업정지 시기를 기존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기한다고 정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정 사유는 ‘관련 자산의 매각 지연’이다.

삼성테크윈, 미국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

삼성테크윈이 미국의 영상분석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TC는 웹사이트를 통해 어브젝티브비디오가 삼성테크윈과 일본 소니, 독일 자동차 부품사 로버트 보쉬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회사의 비디오 제품 수입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ITC가 미국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으나 어브젝티브비디오의 제조장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버지니아주 레스틴에 본사를 둔 어브젝티브는 경비나 보안, 기업정보, 공공안전 등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연방 지방법원에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림푸스한국, 현미경·산업용 내시경 사업 진출

올림푸스한국이 새로운 사업부문인 '생명산업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현미경 사업과 산업용 내시경 사업을 시작하고 밝혔다.

올림푸스한국은 지금까지 현미경과 산업용 내시경을 일본에서 총판 형태로 들여왔으나 브랜드의 전략적 통합과 기업 시너지를 위해 사업권을 인수했다. 앞으로 올림푸스한국은 국내 공급, 주문형 검사장비 개발, 마케팅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을 자체 운영한다. 이번 사업 진출은 기존 카메라와 의료 내시경으로 이원화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방일석 사장은 "기존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생명산업사업본부를 출범시켰다"며 "올림푸스한국은 BT(Bio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를 아우르는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엔유프리시전·크루셜텍 등 '월드 클래스 300' 대상 기업 선정

에스엔유프리시전, 크루셜텍, 상신브레이크 등 9개 업종 30개 우량 중소기업을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2011년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지식경제부가 지난 5월22일 밝혔다.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148개 기업이 신청(경쟁률 4.9대1)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30개 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과거 실적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패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전략의 타당성과 구체성,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 성장 잠재력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올해 선정된 30개 기업들에게는 코트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출입은행, 산업기술연구회 등 12개 지원기관 협의체를 통해 기술개발, 해외진출, 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3~5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5년동안 연간 1억원 한도에서 맞춤형 마케팅 로드맵 수립 및 해외마케팅 지원 △3년간 기업당 2명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인력 파견,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IPO) 컨설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경부는 내년에 60개 기업을 선정하는 등 2016년까지 총 300개의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뷰릭스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38곳 선정

지식경제부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의 올해 대상 업체 38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ATC로 선정된 업체는 경인양행·그린파워·기산전자 등 33개사이며, 뷰릭스·엘엠에스 등 5곳은 세계일류기술연구센터(WATC)로 뽑혔다. WATC는 ATC보다 매출액 중 수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업체다. 지경부는 최대 5년간 ATC에는 매년 5억원 이하의 자금을, WATC에는 10억원 이하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광기술원-독일 쇼트사, 적외선 광학렌즈 분야 공동연구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선호)은 지난 6월 28일 광학렌즈분야 세계 최고 회사

인 독일 쇼트(Schott)사와 적외선 광학부품 및 소재 분야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김선호 한국광기술원장과 그레고 그로쓰 쇼트 아시아 총괄이사를 비롯한 양측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적외선 광학렌즈 분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광기술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규 블루오션시장으로 떠오르는 적외선 광학계 핵심인 소재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U, 디지털복합기 관세 철폐

유럽연합(EU)이 디지털복합기에 물리던 6% 관세를 철폐할 전망이다. 캐논 등 일본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만 신도리코 등 우리나라 업체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니혼게이자이는 EU가 디지털복합기 관세 조정에 착수했다고 지난 6월28일 보도했다. EU는 최종 조정 과정을 거쳐 조만간 관세 철폐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일본을 주축으로 미국과 대만이 정보기술협정(ITA) 위반 이유로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ITA는 IT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WTO의 결정이다. 일본 등은 EU가 아날로그 복사기의 6% 관세를 IT 제품인 디지털복합기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이 주장을 인정, EU에 올해 6월 말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EU는 WTO의 권고대로 관세 철폐를 수용했지만 이와 별도로 ITA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복합기 중 디지털복사가 주요 기능인 제품은 '기타 기계'로 분류, 2.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조사를 보면 2009년 EU가 수입한 복합기 규모는 2800억엔(약 3조747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본 업체들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관세 철폐로 일본 기업은 연간 140억엔(약 1873억원) 정도의 이익이 기대된다.

LED 조명산업 '내우외환'

최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중소기업 적합 품목 지정 여부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궁극적인 경쟁 상대인 해외 조명 업체들은 몸집을 불리며 시장 공세를 강화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내기업 간 대립보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울프강 데헨 오스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뮌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LED 조명의 공격적인 사업 확대를 선언했다. 그런가하면 세계 조명시장 1위인 필립스는 LED 조명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루미레즈를 시작으로 무려 11개의 LED 조명 관련 업체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필립스는 경쟁력을 토대로 공격적인 가격 정책도 예고하고 있다. 이 회사는 5년 안에 LED 조명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세계 조명시장은 필립스, 오스람, GE 등이 50%를 장악하고 있고 국내시장도 이들 '빅3'가 60% 이상을 잠식한 상태다. 조명용 고출력 LED 칩 기술 역시 이들 기업들이 앞서 있어 기존 조명시장 지배력이 고스란히 LED 조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영역 다툼이 한창이다. 지난달 한국LED보급협회는 총회를 열고 "대기

한국광학회 영문논문지 JOSK, '2010 SCI/SCIE' 저널순위 45위 랭크

한국광학회 영문논문지 JOSK가 Thomson Reuters사에서 발표하는 2010 SCI/SCIE 저널 78개중 45위에 올랐다.

Thomson Reuters사에서는 매년 SCI/SCIE 저널 목록과 그 impact factor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한국광학회의 영문논문지인 JOSK(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의 값이 0.886 으로서 "OP-

TICS"로 분류된 SCI/SCIE 저널 78개중 45위에 올랐다.

JOSK는 현재 SCIE 저널이고, SCOPUS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다. 또한 OSA의 논문데이터베이스인 Optics InfoBase에도 JOSK의 제 1권 1호부터의 모든 논문들이 완전 open access로 공개되어, 전세계에서 누구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손쉽게 JOSK 논문 파일들을 볼 수 있다.

업이 LED 조명 분야에 무차별 진출해 중소기업을 존재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 조달에서 대기업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역시 이런 내용을 최근 동반성장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시장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력을 갖춘 큰 기업들이 LED 조명 산업에 뛰어 들고 있는 것을 볼때,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 품목으로 지정하는 건 시장 경쟁 논리나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LED 산업 생태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대중소기업 간, 분야 간 역할 분담 및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부족. 이에 따른 시너지 창출보다 갈등 구도 부각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후발주자로 소자 원천기술 및 조명 산업 노하우 부족.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구축 미흡 ▶중소기업의 경우, 전통 조명 산업 연속선 상에서 특화 기술력 없는 다수의 기업이 범용 제품을 단순 조립해 판매하는 영세 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

광학신상품

한국후지제록스(주)

친환경 복합기 6종/A4용 복합기2종 출시



▶한국후지제록스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A4 복합기인 '아페오스포트-IV C4430'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가 친환경 컬러 복합기 6종과 기업용 A4 컬러 복합기 2종을 선보였다.

먼저 친환경 컬러 복합기 '아페오스포트-IV(C7780·C6680·C5580)'와 '도큐센터-IV(C7780·C6680·C5580)' 6종은 스마트 절전 기술을 채택해 기존 자사 모델 대비 최대 70%까지 전력을 절감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마트 절전 기술은 절전모드에서 대기모드로 복귀할 때 복합기 전체가 아니라 복사·출력·팩스·스캔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만 전

력을 공급한다.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져 사진과 흡사한 품질을 구현하는 2400×2400dpi 고해상도로 컬러 문서를 분당 70장 출력할 수 있다. 원패스 양면 스캔 기술을 채택, 컬러 양면 문서를 분당 100장 스캔할 수 있다. 또 스캐너에 파워 LED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해 점등부터 첫 장 복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7초 이내로 단축했다.

한편, A4 복합기인 ‘아페오스포트-IV C4430’ 과 ‘도큐센터-IV C4430’ 은 한국후지제록스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A4 복합기로, 출력과 복사·스캔·팩스 등 A4 복합기의 일반적인 기능 외에 기업의 문서 보안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문서관리 솔루션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후지제록스는 그동안 A3 복합기 사업에 주력해 온 틀에서 벗어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문서관리 솔루션 적용이 가능한 복합기 범위를 A3에서 A4 사이즈로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다양한 환경 및 업무 특성에 맞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A4 복합기 출시를 통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엔트리급 디지털인쇄기 2종 출시



▶ 한국후지제록스의 엔트리급 컬러 디지털 인쇄기 ‘컬러 550·560 프린터’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엔트리급 컬러 디지털 인쇄기 ‘컬러 550·560 프린터’를 출시했다.

전통적인 오프셋 인쇄에서 디지털 인쇄사업으로 부담없는 전환을 유도한 이 신제품은 가격을 수억원대인 기존 제품보다 저렴한 수천만원대여서 중소기업, 인쇄업체, 문서 출력량이 많은 기업, 광고대행사, 디자인 업체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엔트리 기종이다. 2400×2400dpi의 높은 해상도로 선명한 고품질 이미지를 구현하며 분당 최대 60장(컬러)을 출력할 수 있다. 일반적인 A4용지에서부터 달력이나 앨범처럼 두꺼운 용지까지 사용할 수 있어 포스터·소책자·포토북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테이플·홀펀칭·접지·중철 등의 전문적인 후처리 옵션을 제공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부터 팸플릿·브로슈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문서 제작이 가능하다.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랙 토너가 두 개 탑재돼 작업시 토너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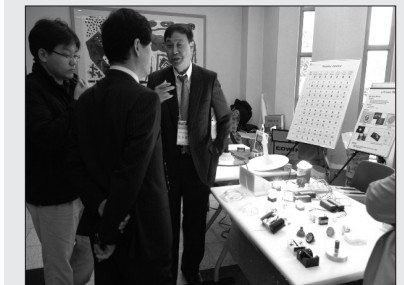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급지·후처리·서버 등의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라인업을 강화해 국내 디지털 인쇄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학이벤트

(주)모던하이테크
2011 LED 핵심부품·소재
솔루션 국제 세미나 개최
 모던하이테크(대표 김명중)는 지



▶ 지난 5월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동 대강당에서 2011 LED 핵심부품·소재 솔루션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현동훈 교수가 최근 개발한 LED조명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난 5월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동 대강당에서 2011 LED 핵심부품·소재 솔루션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던하이테크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경기도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안산시, 한국LED보급협회, 일본 도시바, 전자신문, 전기신문, 한국조명신문 등이 후원한 이 행사에는 100여명이 넘는 국내외 광학인들이 참가하며 대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에는 한국광기술원, 서울반도체 등 국내 유력 업체 및 기관을 비롯하여 미국의 Intermatix, Synopsys Global Kif, 일본의 도시바 머신, Sodick Plustect 및 와세다 대학, 대만의 Light Ocean 등 LED선두 업체 및 전문가들이 메인스피커로 참가해 세계 LED 조명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발표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현동훈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 총효율을 65% 지원하며 엔진가격을 현재의 5분의 1로 대폭 낮춘 한국형 LED 조명엔진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한국광기술원 김선호 원장은 축사를 통해 “본격적인 LED산업의 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LED응용제품 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LED 핵심부품·소재 솔루션 국제 세미나가 세계 LED기술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광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개최

7월14일~15일, 부산 BEXCO에서 열려 한국광학회의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가 7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부산 BEXCO에서 열린다.

한국광학회의 하계 학술발표회는 연구와 교육, 기술개발과 산업 활동 등 산학연 일선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심신의 피로를 씻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자연환경이 좋은 장소를 찾아 개최해오고 있다. 2011년도 하계학술발표회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 최고의 하계관광지인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된다.

윤태훈 하계학술발표회 조직위원장은 “2011년도 하계학술발표회가 광학 및 광관련 산업 현장과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회원들이 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학문, 기술적인 토론을 함으로써 뜻 깊은 만남의 시간과 유익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학인포메이션

3D 공동제작 연구센터 서강대에 설립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3D 공동제작 연구센터가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와 서울시는 3D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업계가 함께 3D 콘텐츠 제작과 3D 응용제품 개발, 시험 분석을 할 수 있는 공통 지원시설을 서강대에 설립하기로 했다.

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지경부에서 38억원, 서울시에서 10억원을 투입한다. 서강대는 센터 설립 부지와 건물 등을 현물로 출자한다. 지경부와 서울시·서강대는 다음 달 초 센터 설립 착공식을 갖고 연내 센터를 가동한다. 센터에는 개별 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3D 제작용 장비와 편집기, 전문 스튜디오 등이 구비된다. 향후 의료·교육·건축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도 함께 갖춰진다. 지경부와 서울시는 업계 요구를 수렴해 활용도가 큰 장비부터 우선 도입한다. 센터 관리와 운영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맡는다.

지식경제부, 3D 산업분야의 강소기업 육성

정부가 3D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3D 시제품·사업화 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3D 기술응용 시범사업’ 사업자로 이공감·엠프론티어·엔텍코아 등 7개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3D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경부는 올해 30억원을 포함해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한다.

7개 컨소시엄은 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번 시범사업자로 선정, 3D 응용제품의 사업화를 조기 달성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의 자금 지원 속에 7개 컨소시엄은 3D 교육교재·3D 물류관리시스템·3D 영상체협시스템·3D 응급 의료 시뮬레이터 등을 각각 개발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발된 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 개선, 마케팅 지원, 공동 홍보물 작성, 전문 기술정보 교류 등의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LED조명의 KS인증 비용 및 인증기간 단축

지난 6월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관련 제품의 KS 인증 수수료가 약 50~70% 줄어들고 인증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됐다. 대상은 컨버터내장형·매입형 및 고정형·이동형·센서등·모듈 컨버터 등 LED 조명 관련 5개 품목이다. 지식경제부는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 내용을 골자로한 KS 인증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KC 인증 획득 LED 조명 제품을 기업이 관공서에 납품하기 위해 KS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 기준에서 중복 시험을 면제한 게 골자다. 이전엔 KC와 KS 간의 인증 시험 항목 중 7~10개 시험 항목이 중복된 탓에 추가 비용 증가로 기업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KC 인증을 받은 LED 조명 관련 제품이 KS 인증을 신청할 경우 품목당 시험수수료는 기존 280만~35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험기간도 기존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